









Salon de Madame Geoffrin

Salon! 20세기초까지 유지된 작가, 예술가, 정치인들의 고급 사교모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살롱을 대신해 카페가 모임의 장소가 됨.





Les Deux Magots 레 두 마고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난쟁이 백작 주주



에브드카스트로 장편소설 정장진 옮김



[난쟁이 백작 주주 원제: Joujou]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 에브
드 카스트로 장편소설
정장진 옮김 | 열린책들 | 2017년 02월 25
일 출간

계몽주의에서 프랑스 대혁명까지를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소설.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한 천재 난쟁
이의 슬픈 이야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포함됨

“당신의 아름다움은 긴 겨울을 지나고 비치는 첫 햇살. 얼음을 뚫고 종달새를 노래부르게 하오. 꿈 속에서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볼 때면 별들이 모여 그대의 얼굴을 그리고 있소. 그대의 미소를 따서 내 입술에 걸지요. 어느 새 그대와 나, 입을 맞추고 있소.”

<난쟁이 백, 주주>에 나오는 한 사랑의 편지. 주주가 장차 부부가 될 백작 부인과 남자 귀족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큐피드 역할을 하면서 쓴 연애 편지. 전형적인 프레스시오지테 문구들이다.

Préciosité 프레시오지테

Balai 비	Instrument de la propreté 청결의 도구
Fauteuil 소파	Commodité de la conversation 대화의 편의
Laquais 하인	Nécessaire ou inutile 필요하지만 무가치
Sein 유방	Reservoir de la maternité 모성의 저수지
Miroir 거울	conseiller des grâces 우아함의 조언자
Les yeux 눈	miroirs de l'âme 영혼의 거울
Discours 담화	visage de l'âme 영혼의 얼굴
Ma commune, allez quérir mon zéphyr dans mon précieux 서민이여, 나의 귀중한 것 속에 있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를 사로잡아 오렴.	
Ma suivante, allez chercher un éventail dans mon cabinet 애야, 가서 부채 좀 가려 오렴	